

미래산업 육성·기업지원 기능 강화 전력

인천TP,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 시장, 고유기능 강화 당부

인천시는 12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를 방문해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인천TP의 운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TP가 4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인천TP의 중소기업 성장지원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 혁신성장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TP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 마련 및 기업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파브(PAV, 개인용 항공교통수단, Personal Air Vehicle)·미래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100조 경제 시대'로의 도약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인천TP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반도체패키징산업, 로봇 등 인천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안중삼 기자

안테나

중구, 소상공인 대상 24억 특례보증 실시

중구가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상승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4억원 규모의 중구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3000만원, 경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다.

대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 후 첫 1년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대출 기간 5년 동안 대출이자 3%를 중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2% 전후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례보증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중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정현 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한 자금지원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일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도시민 안정적인 어촌 정착 도모



인천시가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한 달간 모집한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2013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나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양식업·소금생산업·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 당 3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안중삼 기자

인천환경공단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인천환경공단은 최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환경연구협의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의장인 배양섭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의 진행으로 인천의 주요 환경 현안 중 하나인 악취관리방안을 주제로 인천지역 악취관리기금의 활용방안, 환경기초시설 등 지역 악취 관리를 위한 스마트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와 토의가 이뤄졌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악취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인천의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연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차게 새해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안중삼 기자

옹진군, 농촌지도지원·시범사업 신청 접수

옹진군은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23년 농촌지도지원·시범사업을 16~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시범사업은 농업 신기술보급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41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사업 41개 사업으로는 △연구개발분야 공중병영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기술시범 등 6개 △식량작물분야 잡곡 신품종 조기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소득작목분야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시범사업 등 14개 △농업기계분야 농기계간이보관창고지원 외 5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이며 신청은 각 지구지소 및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새기술 보급 및 우리지역 현장적응을 위한 지도사업 등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을 시범 농가에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옹진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중환 기자

'진도 3.7'... 인천 지진안전지대 아냐

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 체육관·고교교 내진 보강

인천시가 9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을 계기로 2023년도 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나 유감사고만 35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약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사업규모 확

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1년~2022년까지 총 577건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도원체육관, 문학1C 1·2교, 갈산1동행정복지센터 등 총 39개소(예산 53억원, 군·구 예산 포함)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구 내진성능 확보율(55.2%)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예산은 군·구별 추경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

시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지난 2020~2022년 까지 민간건축물 11동이 인증을 신청해 8동이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각각 최대 30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이 신청대상이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박병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진 도상훈련, 지진행동요령 홍보, 지진 대피장소 확충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아암대로·연안부두 해안산책로 조성 '순조'

인천시, 연오랑 등대 등 해양친수공간 7월 개방

인천 앞바다를 더 가깝게 감상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연안부두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착공, 오는 7월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남동구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는 송도매립으로 기능이 상실된 해안 방파벽(바이오산업교~신항만교 구간, 높이 1.5m, 폭 1.0m)과 노후한 군조소(2개소)를 철거해 친수 산책로와 쉼터로 조성하고 상태가 양호

한 군조소(1개소)는 해안 전망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중구 연안부두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는 역무선부두 방파벽 상부폭을 확장(폭3m)해 보행공간과 쉼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길이 269m 규모 인도교와 전망대 조성에 총 9억6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천 앞바다를 바로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어 인천대교와 입출항 선박 등도 볼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민선8기 공약 사항인 해안선 친수공간 워터프런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인천의 상징인 바다를 많은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우수제조식품, 시청 중앙홀에 총 집결

인천시 '우수식품 특별 판매전' 17·18일... 120여 개 품목 선봬

인천시가 17일과 18일 양일간 설 명절 맞이 '인천시 우수 제조식품 특별 판매전'을 인천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특별 판매전은 인천의 우수 식품 제조업소의 판로개척과 매출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통장류, 보리굴비, 떡국떡 등 지역 25개 업체의 120여 개 품목이 선보인다.

판매 품목은 된장·고추장·젓갈·김치·떡국떡·닭갈비·쭈꾸미 볶음·도토리묵·만두·즉석조리식품 등 설 명절 선물용 세트이거나 설 명절 음식이 대부분으로 무료 시식 기회와 함께 시중보다 10~

30%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사)인천식품제조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한 우수 식품 판매전은 식품제조업체가 직접 참여해 유통 마진을 없애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한다.

또 특별판매전 기간동안에는 올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특별판매전을 통해 인천시 우수제조식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나아가 중국·미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 서구 지역 소관기관 현안 사업 살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노을진캠핑장·제3연륙교 점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 서구 지역 내 소관기관 현안 사업을 살펴보았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예고됐던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와 노을진캠핑장(구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제3연륙교 공사 현장 등을 찾았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는 지역 내 6개 구(연수구·계양구 제외) 51개 동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8개 구 1개 군(강화군 제외)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축산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정화시설로, 굴포천(7만5000m³/일)과 계산천(1만

5000m³/일)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부유물과 악취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또 노을진캠핑장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11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됐다.

이 캠핑장은 8만3083㎡ 부지에 캠핑시설(카라반 32대, 오토캠핑 86면)과 주차장(210대), 야외무대 등으로 이뤄져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당시 연간 200만 원에 불과한 노을진캠핑장 연간위탁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제3연륙교는 예산 6500억원을 투입해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지역을 잇는 총연장 4.7km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를 방문해 현안 사업을 살펴보았다. (사진=인천시의회)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영종·청라·송도 국제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영종 국제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서부권역 균형발전 등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큰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제3연륙교의 현재 공진률은 1공구 10%, 2공구 14% 등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도 수시로 소관기관 점검에 나서 시민 불편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중삼 기자